

오늘은 HTML의 날

2024년 7월 13일, 서울, 버드콜

7월 13일은 HTML의 날(HTML Day)이다. 왜
7월 13일인지는 사실 알 수 없다. 어쨌든 HTML을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HTML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HTML의 날은 우리의 친구 엘리엇 코스트(Elliott Cost), 로렐 슈울스트(Laurel Schwulst)가 시작한 HTML 에너지(HTML Energy) 에서 비롯했다.

HTML Energy



Pod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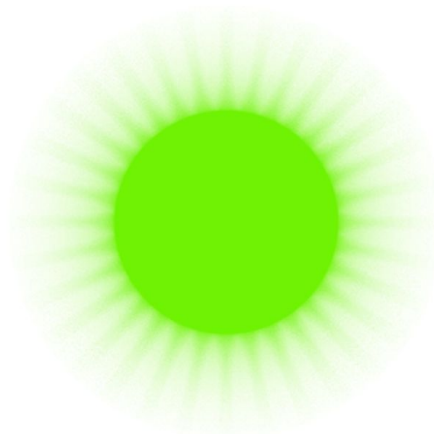
Events



Goals



Join



HTML energy is all around us and in this very website.

Building websites has become complex,
but the energy of HTML persists.

What makes HTML special is its simplicity.

HTML isn't a vast language, yet you can do a lot with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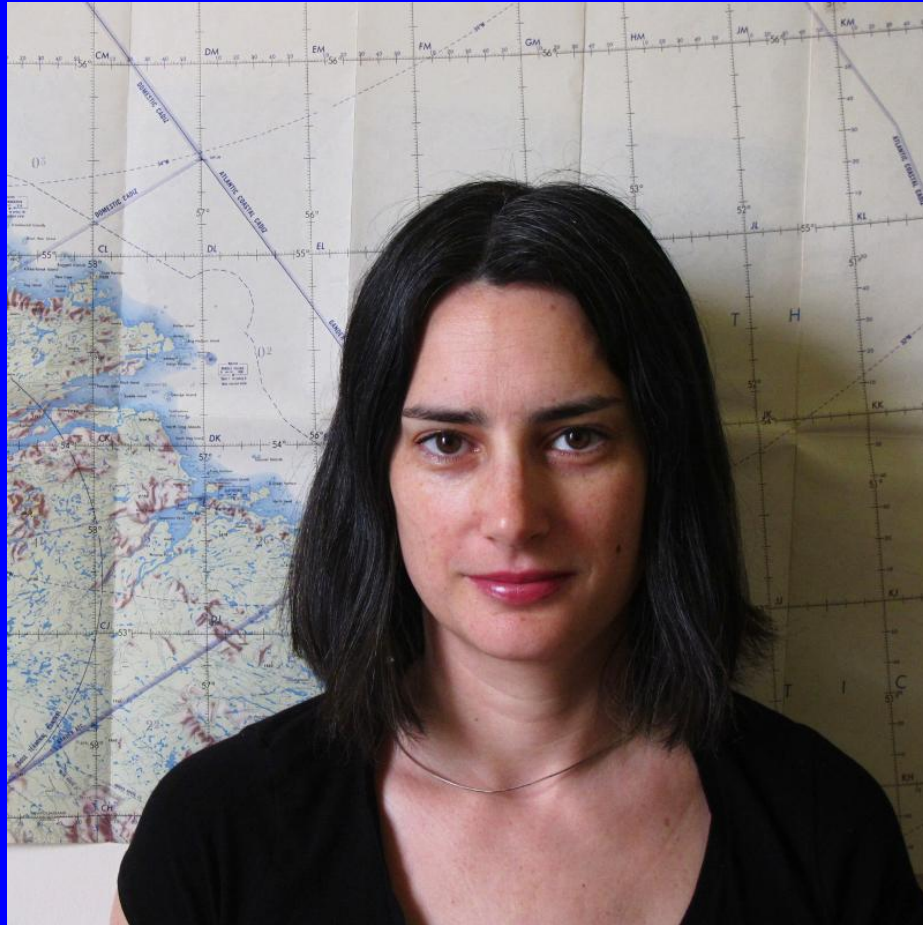
HTML 에너지는 일뿐 아니라 생활에서 HTML이
지닌 에너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자는 제안이다.
누구든 HTML 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다.

HTML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HTML은 단순한 컴퓨터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HTML은 웹의 골격이자 혈관으로, 정보의 구조와 맥락, 의미를 정의하는 우아한 언어다.

HTML은 창작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캔버스다. HTML을 통해 통해 코드와 예술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표현의 영역이 열린다.

1세대 넷 아티스트이자 새로운 질서의 대모 J.R.
카펜터(J.R. Carpenter)가 제시한 핸드메이드 웹
(Handmade Web)의 비전은 HTML을 통해
구현된다.



요컨대 핸드메이드 웹은 대량 생산된 템플릿을
거부하고, 개인의 고유성이 깃든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이다.

HTML은 텍스트라는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를 아우르는 표현의 장을 연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호작용과 참여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오늘날 HTML은 단순한 기술 언어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HTML은 정보와 예술, 기술과 인간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 있는 언어다.

우리가 HTML을 통해 세계를 구축하는 동안
동시에 HTML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을
재구성한다.

즉, 우리가 HTML을 쓰는 동안 HTML 또한
우리를 다시 쓰는 셈이다.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HTML의 날을 축하하며
HTML을 쓸 시간이다. 딱 30분 동안. 브릭스톤이
이야기하는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소리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어원이나
의미보다 그 소리의 당신만의 해석을 알려주세요.

부바(bouba) 같나요? 키키(kiki) 같나요?
따끔따끔한 이름인가요? 아니면 산들바람 같은
이름인가요? 그 소리에는 색깔이 있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아름답네요.
오늘 이곳으로 오는 길에 눈에 띈 것이 있었나요?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은 ‘버드콜’(Birdcall) 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새소리가 있나요?

오늘 우리는 모두 HTML에 관해 이야기하고,
감상하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당신도 HTML을 쓰는 사람으로서
처음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어떤 세부 사항을 주로
보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HTML 색상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HTML 태그는 무엇인가요?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생각하는 방식에 영감을 주는
HTML 밖의 예술가가 있나요? 그들이 당신에게
좋은 웹 마스터가 될 것 같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는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나요?

HTML은 강력하고 아름다운 도구이자
언어입니다. 모든 도구와 언어처럼, HTML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정의되고, 사용함에
따라 경계와 한계가 생깁니다. 아직 우리가
탐구하지 않은 HTML의 새로운 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후 9시가 되면 작별 인사를 하겠쥬. 하지만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웹사이트가 있나요?